

[주] 지씨

회 사 소 개



(주)지씨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분야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 서비스와 노하우를 보유한 해양 ICT 전문 회사이다.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안전을 위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TTA 표준화위원회 활동 계획

(주)지씨는 2021년부터 ‘해양경찰청 클라우드 VTS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기존에 VTS 센터를 구축한 기업들은 각 제조사마다 고유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VTS 센터에서 수집된 관제 데이터를 중앙 클라우드 VTS 센터로 전송하여 통합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지씨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 사이에서도 통신 가능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려 한다. 표준 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TTA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그룹(PG607, 의장 유영호)에서 활동하는 한편,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포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의 도움을 받아 전

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표준 자문 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업화 계획

현재 VTS 시장은 지역 기반의 VTS 시스템에서 중앙 클라우드 VTS 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주)지씨가 개발중인 해양경찰청의 클라우드 VTS 플랫폼은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신규 VTS 시스템 구축 시 널리 활용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 관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명선해양산업(주)

회 사 소 개



명선해양산업(주)

명선해양산업(주)은 1984년 설립한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양식기술과 고객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의 사업적 성공에 기여하는 회사로서 재래식 양식으로부터 첨단 양식산업 시대로 발전을 선도해 왔다. 양식 중 소중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시스템을 개발, 적용한 스마트 양식기술이 대표적인 사업 영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명선해양산업은 수산 양식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데 앞장서는 한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TTA 표준화위원회 활동 계획

바이오양식 분야가 고도화되려면 수질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나 ICT 자동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예측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양식 분야의 데이터 수집 작업은 미미한 수준이며, 각종 기기나 데이터 형식 간 표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이오양식 분야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수집 표준화가 필요하다. 명선해양산업(주)은 표준화위원회 활동 및 제안을 통해 국내 표준 제정과 국제 표준 제안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화 계획

명선해양산업(주)은 “바다를 풍요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미션 하에 해양생물 관련분야의 인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2022년 기준 38년 동안 양식분야를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양식종자 생산과 관리 솔루션을 기반기술로 확보했으며, 스마트양식시스템, 양식엔지니어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바이오양식, 수질 환경모니터링, ICT자동화, 수처리 분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명선해양산업(주)은 이미 구축한 수질측정제어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시대 스마트 양식사업을 선도하며, 첨단양식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접목하여 미래양식분야의 인공지능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